



# 에이즈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레드리본은 에이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2005년 한 해 동안 하나의 주제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에이즈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에이즈 인식전환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

## 에이즈는 성행위로 감염되므로 콘돔을 사용해야

에이즈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의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므로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질 때에는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혈액이나 정액, 질 분비물 같은 체액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많이 분포한다고 하니 성관계시 그런 체액과의 접촉을 피해야겠다. 또한 비정상적인 성행위, 예를 들어 구강성교나 항문성교시 체액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동성애자들 간의 성관계시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많으므로 동성간의 성관계도 피해야 한다.

그 밖에 에이즈 환자가 사용했던 물건들과의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공중 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에서 타인이 쓰던 물품(예를 들어 칫솔이나 면도기 등)은 가능한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이용하게 될 경우는 항상 손을 철저히 하고, 혈액이나 체액은 함부로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김민형(23세 · 대학생)

• 여기서 잠깐! 감염인 · 환자가 사용한 물건만 만지는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답니다.

## 최선은 NO sex, 차선은 콘돔

현존하는 최선의 에이즈 예방책은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에이즈의 공포를 무릅쓰고 굳이 섹스를 해야 한다면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콘돔의 사용이다. 건강검진 기록을 들고 다니면서 이성(또는 동성)을 만나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생식 기관간의 직접적 접촉을 막아주는 콘돔의 착용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콘돔의 사용이 완벽한 에이즈 예방을 실현하지는 못 한다고 한다. 또한 구강 내에 환부를 가지고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키스를 삼가는 것이 좋다. 비록 키스를 통한 감염이 직접적 성행위를 통한 감염보다 한결 낮은 수치를 보이겠으나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물론 타액을 통한 직접적 감염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수혈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은행 등에 자신의 혈액을 미리 채혈, 저장해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경제적인 여건을 따져봐야겠지만 에이즈 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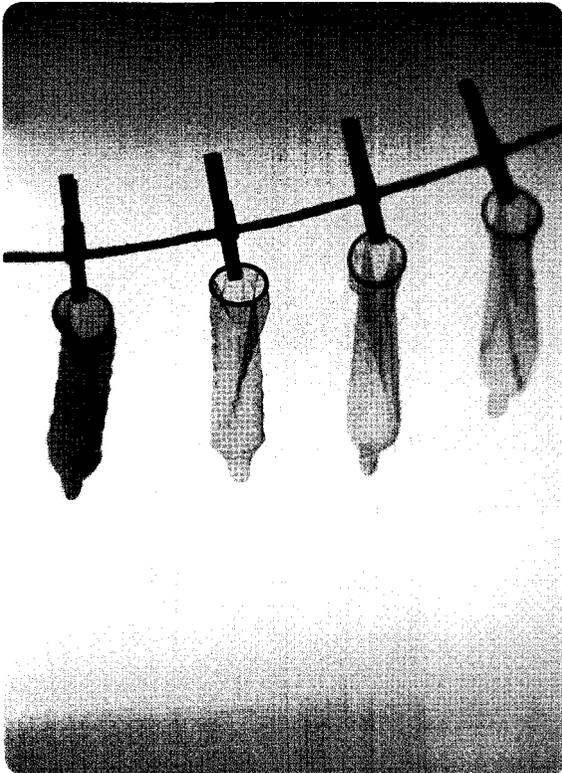
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할 때 충분히 납득할만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를 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박수정(31세 · 회사원)

### 첫째는 콘돔 사용

에이즈. 이 단어를 듣고 얼른 생각나는 것은 성관계를 통하여 전염된다는 것이다.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는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들은 기억이 난다. 에이즈 예방법이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첫째, 콘돔을 사용한다. 둘째, 수혈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염된 주사바늘을 통해서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넷째,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혹시 피가 묻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동성연애를 하



지 않는다. 여섯째,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기타, 수영장에 가는 것을 삼간다.

모든 사람들이 에이즈를 조심한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김형삼(38세 · 주부)

... 콘돔을 쓰거나 목걸이를 통해서 HIV가 전파되지 않으며 수혈시 주사바늘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HIV가 감염된 혈액이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염되는 것이랍니다.

### 부부간 성생활이 최상의 예방법

내가 알고 있는 에이즈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동성간이나, 마약 복용 등을 하고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을 때 발병하며, 최근에는 수혈 등으로도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적절한 치료를 못 받으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며, 아직 100% 치료제는 만들지 못하여 현대의 페스트라고 생각한다.

에이즈를 예방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통한 성생활이 최상의 예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부득이한 성관계시에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고광환(47세 · 회사원)

... HIV 감염은 동성 간 성관계 혹은 마약 복용 이후 무리한 성관계 등이 아니라 감염된 사람과 근접한 성관계를 했거나 감염된 사람에게 사용한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했을 경우 생깁니다.

### 에이즈, 나와는 상관없는 일

도회지를 떠나 공기 좋은 지방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에이즈를 예방한다는 말도 낯설고 에이즈에 관하여 담고 있는 지식도 없다.

가끔씩 방송을 통해 에이즈라는 말이 흘러나오기는 해도 우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까 들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날 정도다.

에이즈의 예방법에 대하여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그런 데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기에 알고 있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발해서 생각도 안 해 보고 있다.

최구진(52세 · 피아노학원장)